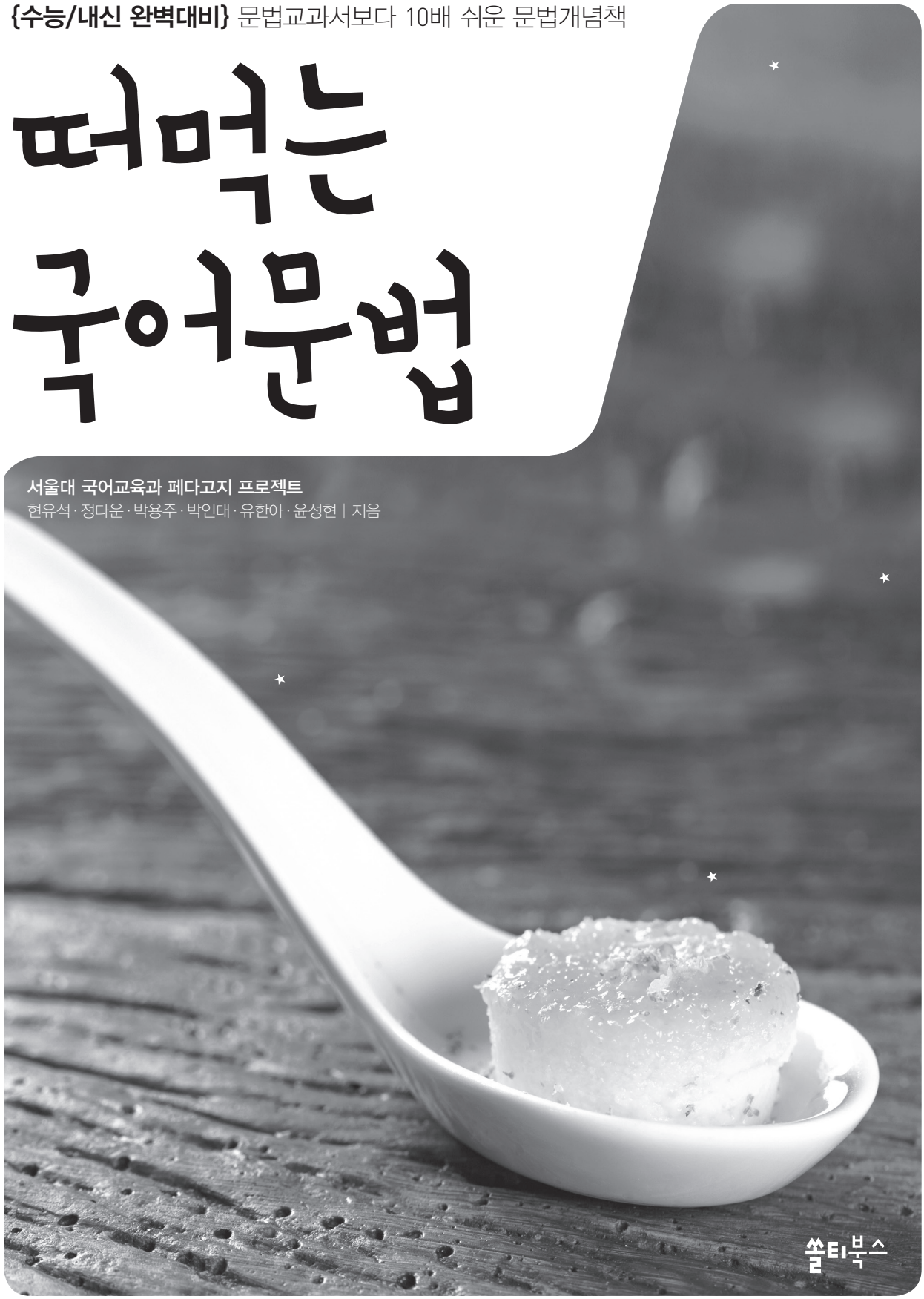
{수능/내신 완벽대비} 문법교과서보다 10배 쉬운 문법개념책

떠먹는 국어문법

서울대 국어교육과 페다고지 프로젝트
현유석 · 정다운 · 박용주 · 박인태 · 유한아 · 윤성현 | 지음



쏠티북스

Contents

Index ---------- 8

I. 음운

Act 01 음운 ---------- 12
Act 02 국어의 음운 체계 ---------- 15
❶ 발음 기관 ❷ 모음 ❸ 자음
Act 03 음운 변동 ---------- 25
❶ 교체 ❷ 탈락 ❸ 첨가 ❹ 축약
개념 VS 개념 ---------- 38
종합문제 | 실전연습 ---------- 40
단원 총정리 ---------- 51

II. 단어

Act 04 단어의 형성 ---------- 54
❶ 형태소 ❷ 단어의 구조 ❸ 단어 형성법
Act 05 단어의 분류 ---------- 61
❶ 분류의 기준 ❷ 체언 ❸ 관계언 ❹ 용언 ❺ 수식언 ❻ 독립언
Act 06 단어의 의미 ---------- 76
❶ 의미의 정의 ❷ 의미의 유형 ❸ 어휘 ❹ 단어의 의미 관계
개념 VS 개념 ---------- 86
종합문제 | 실전연습 ---------- 90
단원 총정리 ---------- 100

III. 문장

Act 07 문장의 성분 ---------- 104
❶ 문장과 문법 단위 ❷ 문장 성분의 종류
Act 08 문장의 구조 ---------- 112
Act 09 문법 요소 ---------- 120
❶ 문장 종결의 유형 ❷ 높임 표현 ❸ 시간 표현 ❹ 피동 표현
❺ 사동 표현 ❻ 부정 표현

Act 10 문장의 의미 ---- 139
개념 VS 개념 ---- 144
종합문제 | 실전연습 ---- 145
단원 총정리 ---- 156

IV. 어문 규정

Act 11 한글 맞춤법 ---- 160
❶ 제1장 총칙 ❷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❸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❹ 제5장 띄어쓰기 ❺ 그 밖의 것
Act 12 표준어 규정 ---- 182
❶ 표준어 사정 원칙 ❷ 표준 발음법
Act 13 외래어 표기법 ---- 196
Act 14 로마자 표기법 ---- 202
개념 VS 개념 ---- 206
종합문제 | 실전연습 ---- 208
단원 총정리 ---- 217

V. 국어사

Act 15 훈민정음 ---- 220
❶ 훈민정음 이전의 표기 ❷ 훈민정음의 창제 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❹ 훈민정음의 운용
Act 16 국어의 변천 ---- 233
❶ 표기의 변천 ❷ 음운의 변천 ❸ 단어의 변천 ❹ 문장의 변천
❺ 자료를 통해 본 중세 · 근대 국어
개념 VS 개념 ---- 259
종합문제 | 실전연습 ---- 260
단원 총정리 ---- 270

VI.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 272
❶ 제1회 ❷ 제2회 ❸ 제3회 ❹ 제4회

Act 03

음운 변동

교과서핵심 ⑪ | 음운 변동 ★★★★★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거나 없어지는 현상

우리는 발음을 할 때 표기된 글자 그대로 발음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 '샘물[샘물]', '봑어[보거]', '앉아[안자]'와 같은 발음에서는 글자 그대로 소리를 이어서 발음하면 되거든.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음운이 바뀌거나 없어질 때가 있어. 예를 들면 '밥만'을 생각해 봐. 발음할 때 자연스럽게 [밤만]이 되지? 'ㅂ'이라는 음운이 'ㅁ'으로 바뀐 거야. 이처럼 환경에 따라서 음운이 변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불러.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음운을 바꾸어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 [밥,만]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밤만]으로 바꾸어 발음할 때 말하기가 편하기 때문이야. [밥,만]으로 읽으려면 소리도 끊어지는 데다 자연스럽게 읽기도 어렵잖아.

이처럼 음운 변동은 발음을 편하게 하려는 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면서 발음 습관으로 굳어져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게 된 거야. 이후에 그러한 패턴들에 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너희도 이미 이 패턴대로 발음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알아볼 내용에 대해 모두 외워야 한다는 부담은 가지지 않아도 돼. 그럼 이제 음운 변동의 규칙에 대해 살펴보자.

쌤 Tip

음운 단원에서는 '03. 음운 변동'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니까 꼼꼼히 읽어 두도록!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에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교과서핵심 ⑫ | 음운 변동의 종류 ★★★☆☆

- 교체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변하는 것
- 탈락 : 한 음운이 없어지는 것
- 첨가 :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것
- 축약 :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것

이제 본격적으로 음운 변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지? 크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 위의 설명과 함께 아래 표를 한번 살펴볼까?

종류	변동 공식	변동 예시	
교체	A → B	국물[궁물]	ㄱ → ㅇ
탈락	A + B → A or B	흙[흑]	ㄹ + ㄱ → ㄱ
첨가	A + B → ACB	논일[논닐]	ㄴ + ㅣ → ㄴㄴㅣ
축약	A + B → C	좋고[조코]	ㅎ + ㄱ → ㅋ

각각의 음운 변동에 대해 왼쪽에는 공식, 오른쪽에는 그에 대한 예시로 정리해 봤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공식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 정말로!

먼저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변하는 현상이야. '국물'을 예시로 들 수 있어. '국물'에서 '국'과 '물' 사이에 있는 'ㄱ'은 발음할 때는 'ㅇ'으로 바뀌어. [궁물]로 발음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을 '교체'라고 불러. 앞으로 배우겠지만 교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가 있어.(교체를 어떤 교과서에서는 대치라고 하기도 해. 음운 변동을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눈 것은 변화의 결과에 따라 분류한 거야. 음운 변동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어.)

탈락은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이야. '흙'은 [흑]으로 소리 나지? 받침에 있는 'ㄹ'이 발음할 때에 탈락돼서 없어진 거야.

음가(音價)는 한자어로 소리의 값이라는 거야. 즉, 하나의 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해. 국어에서 모음 앞의 'ㅇ'은 소리를 따로 가지지 않고 있으므로 음가가 없다고 해.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새로 뿅! 생겨나는 현상이야. '논일'의 발음은 [노닐]이 아니라 '논'과 '일' 사이에서 'ㄴ'이 덧붙었기 때문에 [논닐]이 되잖아. 이게 바로 첨가가 된 거야.('일'에서 'ㅇ'은 음가가 없어. 모음만 쓰기엔 어색하니까 형식적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거지. 초성의 'ㅇ'은 모두 음가 없는 'ㅇ'이라는 거 함께 알아 둬. ^^)

축약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이야. '좋고'를 예로 들면, '좋'와 '고' 사이에 있는 'ㅎ', 'ㄱ'이 합쳐져서 'ㅋ'이 되었어. 발음은 [조코]!

1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교과서핵심 ⑬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음절의 끝소리, 즉 받침이 되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 중 하나로만 소리 난다는 규칙

우선 음절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음절**이란 간단히 말해서 '최소의 발음 단위'야.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라고 할 수 있어. 쉽게 말하자면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 할 수 있는 거지. '강아지'에서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는 '강', '아', '지' 잖아. '강', '아', '지'가 각각 하나의 음절이라고 할 수 있어.

음절의 끝소리는 **받침(종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받침에는 모든 자음이 다 들어갈 수 있고 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에는 이 받침들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넘어가 발음되어(이를 '연음'된다고 해.) 자기 고유의 소리를 낼 수 있어. 예를 들면, '꽃이', '꽃이', '곧아'를 발음해 보면 [꼬치], [꼬지], [고다]로 소리가 난다는 거야. 이처럼 뒤에 모음이 오면 앞의 받침이 뒤의 모음에 붙어 발음되면서 본연의 소리가 그대로 나타나.

하지만 음절의 끝소리이면서 ① 뒤에 자음이 올 때나, ②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고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받침 고유의 소리가 사라지고 다른 소리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꽃'과 '꽃밭'을 발음해 봐. [꼳], [꼳빧]이 되지? '꽃'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그 뒤에 자음이 오면 끝소리인 'ㅊ'이 'ㄷ'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 '낫'과 '낮'은 분명 다른 단어지만 앞에서 말한 ①, ②의 조건 하에서는 둘 다 [낟]으로 똑같이 발음이 나게 돼. 결국 음절의 끝소리, 즉 받침은 이 두 가지의 조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7개의 자음으로만 소리 나게 돼.

ㄱ, ㅋ, ㄲ	→ ㄱ
ㄴ	→ ㄴ
ㄷ, ㅌ, ㄸ, ㅅ, ㅆ, ㅈ, ㅊ, ㅉ, ㅎ	→ ㄷ
ㄹ	→ ㄹ
ㅁ	→ ㅁ
ㅂ, ㅍ, ㅃ	→ ㅂ
ㅇ	→ ㅇ

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을 '대표음'이라 하고, 끝소리가 대표음으로만 소리 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라고 해. 그리고 이 규칙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지.

쌤 Tip

7개의 대표음을 초성으로 해서 '가느다란 물방울' 혹은 '그녀 다리만 봐요.'로 외우면 쉽게 기억할 수 있겠지?

교과서핵심 ⑭ | 비음화 ★★★★★

받침으로 쓰인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 받침 ㄱ, ㄲ, ㅋ + 비음 → 받침 ㅇ + 비음 예 국물[궁물]
- 받침 ㄷ, ㄸ, ㅌ + 비음 → 받침 ㄴ + 비음 예 닫는다[단는다]
- 받침 ㅂ, ㅃ, ㅍ + 비음 → 받침 ㅁ + 비음 예 앞마당[암마당]

앞의 자음 부분에서 공부했었는데, '비음' 기억하고 있지? 오잉! 비음이 뭐였냐고?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 봐 친절하게도(!) 아래에 자음 분류표를 다시 한번 보여 줄게. 쌤도 많이 헷갈렸던 개념이니까 나만 기억 못하는 거 아니냐며 슬퍼하지는 말고. ^^ 지금 한 번 더 보면 기억에 더 오래 남게 될 거야!

비음은 공기가 코를 거쳐 나오는 소리를 말하고, 비음에는 'ㅁ, ㄴ, ㅇ'이 있어.('ㄹ'은 같은 울림소리이기는 하나 유음에 해당하니 비음과 헷갈리지 말고.) **비음화**는 '비음' + '화'(化 : 될 화)로, 말 그대로 '비음이 된다'는 뜻이야. 즉, 비음이 아닌 자음이 음운 변동에 의해서 비음이 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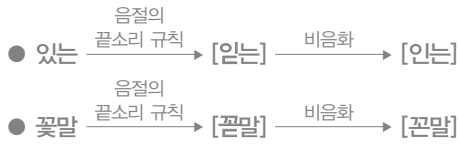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두 입술 (양순음)	윗잇몸-혀끝 (치조음)	센입천장-혓바닥 (경구개음)	여린입천장-혀 뒤 (연구개음)	목청 사이 (후음)
무성음 (안울림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거센소리					
유성음 (울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비음화는 받침으로 쓰인 파열음이 비음과 만났을 때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곧장 이어서 발음하려면 입으로만 열려 있던 공깃길을 순식간에 코로 열리도록 바꾸어야 하잖아. 공깃길을 갑자기 확 바꾸려면 아무래도 쉽지 않겠지. 따라서 뒤에 비음이 이어질 때 앞의 파열음을 비음으로 바꿔서 편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야. 공깃길을 갑자기 바꾸는 일이 없도록 말이지.

그렇다면 'ㄱ'은 왜 'ㅁ, ㄴ, ㅇ'의 비음 중에서 'ㅇ'으로만 바뀌는 걸까? 간단해. 발음하면서 공깃길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했잖아~ 그러니 발음을 어렵게 하는 공깃길 문제만 해결해 주고(즉 조음 방법만 바꾸고), 발음하는 위치(조음 위치)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위의 표에서 'ㄱ'을 한번 찾아볼래? 그리고 그 줄의 아래쪽을 봐. 'ㅇ'이 보이니? 'ㄱ'과 'ㅇ'이 같은 줄에 있다는 것은 두 자음의 조음 위치(여린입천장, 혀 뒤)가 같다는 거겠지! 'ㄱ, ㄲ, ㅋ'은

'ㅇ'과 조음 위치가 같기 때문에 비음과 만났을 때 비음 'ㅁ, ㄴ, ㅇ' 중에서 'ㅇ'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굼물], [군물]이 아니라 [궁물]이 되는 거야. 'ㄷ, ㄸ, ㅌ/ㅂ, ㅃ, ㅍ'도 마찬가지야. 'ㄷ, ㄸ, ㅌ'은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ㄴ'으로, 'ㅂ, ㅃ, ㅍ'은 'ㅁ'으로 바뀌어. 굳이 조음 위치를 바꾸어서 발음을 더욱 어렵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

하나만 더! '있는'을 떠올려 보자. 어떻게 소리 나지? [인는]이네. 어라, 이상하지? 'ㅆ'은 파열음이 아니라 마찰음인데 비음인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어. '꽃말'은 어때? 이것 역시 [꼰말]로 발음되는 걸 보니 비음화가 일어났어. 'ㅊ'은 파찰음인데? 이렇게 보면 마찰음과 파찰음도 비음으로 바뀌는데 비음화의 정의에서 왜 '파열음'만 비음으로 바뀐다고 하는 걸까? 음, 이건 말이지, 마찰음과 파찰음이 곧바로 비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음운 현상이 한 번 더 일어났기 때문이야. 앞서 배웠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떠올려 보자. 우리말의 받침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만 소리 난다고 했지? '있는'이나 '꽃말'에서의 'ㅆ'과 'ㅊ'은 받침에서 발음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겠지. 그래서 다음과 같은 변화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과 '꽃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거쳐서 생긴 'ㄷ'이 'ㄴ'으로 변한 거지. 따라서 파열음이 아닌 자음들도 받침일 때 파열음으로 발음된다면, 비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교과서핵심 ⑮ | 유음화 ★★★★★

'ㄴ'과 'ㄹ'이 만났을 때 'ㄴ'이 'ㄹ'로 바뀌는 현상

- ㄹ + ㄴ → ㄹ + ㄹ 예 별님[별림], 겨울눈[겨울룬]
- ㄴ + ㄹ → ㄹ + ㄹ 예 권력[궐력], 신라[실라]

유음이 뭐였더라? 유음은 공기를 흘러가도록 두어서 내는 소리로, 유음에는 'ㄹ' 밖에 없다고 공부했었지! 따라서 **유음화**란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이 된다는 말인데, 'ㄴ'과 'ㄹ'이 만날 때에 (ㄴ이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없어~) 비음인 ㄴ이 유음인 ㄹ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 거야. 예컨대 '별님'이 [별림]으로 소리 나거나, '신라'가 [실라]로 소리 나는 것 등이지.

'신라면'의 발음은?

호기심 많은 친구들은 유음화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 '상견례'나 '생산량'은 ㄴ과 ㄹ이 만나지만, [상결례], [생살량]이 아니라 [상견녜], [생산냥]으로 소리가 나잖아. 이와 같이 'ㄴ + ㄹ'의 경우 'ㄴ + ㄹ' → 'ㄹ + ㄹ'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반대로 ㄹ이 ㄴ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 ㄹ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지. '상견례'와 '생산량'의 경우에는 '상견 + 례', '생산 + 량'과 같이 독립적인 두 단어의 합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유음화가 아닌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다면 '신라면', 너희는 어떻게 발음하니? [신라면]? [신나면]? [실라면]?

광고에서는 어떻게 발음하는 것으로 들리는지 한번 들어 봐!

교과서핵심 ⑯ | 된소리되기 ★★★★★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 받침 'ㄱ, ㄷ, ㅂ' 뒤 예 작다[작따], 닫지[닫찌]
- 어간의 끝소리 'ㄴ, ㅁ' 뒤 예 감고[감꼬], 안다[안따]

(1) 'ㄱ, ㄷ, ㅂ' 뒤에서는 무조건 된소리가 된다.

파열음 예사소리인 'ㄱ, ㄷ, ㅂ' 뒤에서는 예외 없이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끝소리가 'ㄱ, ㄷ, ㅂ'이 아닌 경우에도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예를 들면 '덮개'와 같은 단어에서 말이야. 왜일까? 그렇지!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이야~ '덮개 → [덥개] → [덥깨]'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야. '덮개'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통해 [덥개]가 되고, 이후에 된소리되기를 통해 [덥깨]가 되는 거지.

(2) 어간의 끝소리 'ㄴ, ㅁ'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어간이 ㄴ, ㅁ으로 끝날 때에도 그 뒤에 결합하는 어미의 첫소리가 예사소리면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둬.

쌤 Tip

어간과 어미 / 쉽게 설명하자면 동사와 형용사가 모습을 바꿀 때, 즉 활용을 할 때 그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이 어간, 바뀌는 부분이 어미야. 예를 들어 '먹다'라는 동사는 '먹지', '먹고', '먹으니', '먹자' 등으로 다양하게 모습을 바꿀 수 있지? 이때 '먹'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지, -고, -으니, -자' 등과 같은 것들은 변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먹'은 어간이고, '-지, -고, -으니, -자'는 어미라는 말이야.

교과서핵심 ⑯의 예시에서 '감고'를 보면 '감'이 어간이잖아. 그런데 어간의 끝소리가 'ㅁ'이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ㄱ'이 된소리가 되어 [감꼬]로 소리 나게 되는 거야.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현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어간과 어미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야! 어간과 어미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앞말이 'ㄴ, ㅁ'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아. 예를 들어 '강도 있고 산도 있다'라고 할 때, '산 + 도'는 명사와 조사의 결합이잖아? 이때에는 어간과 어미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아~ [산도]라고 하지 않고 [산또]라고 하는 친구들은 없겠지? ^^

교과서핵심 ⑰ | 구개음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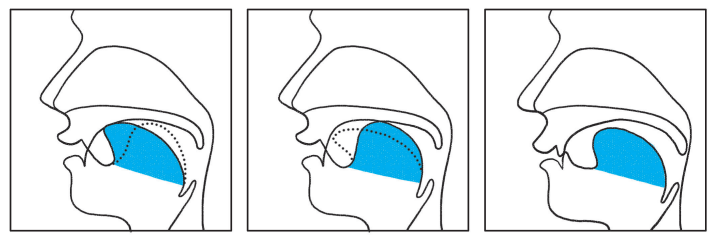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 ㄷ + 모음 'ㅣ' or 반모음 'ㅣ' → ㅈ + 모음 'ㅣ' or 반모음 'ㅣ' 예 굳이[구지]
- ㅌ + 모음 'ㅣ' or 반모음 'ㅣ' → ㅊ + 모음 'ㅣ' or 반모음 'ㅣ' 예 같이[가치]

●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예

"방의 단점을 구지 꼽자면 안에서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거야."

인터넷에서 글을 읽다 보면 '굳이'를 '구지'라고 써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인터넷에 검색해 봐. 금방 찾을 수 있을걸?)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굳이'를 자연스럽게 [구지]로 읽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왜 [구디]라고 읽지 않고 [구지]로 읽을까? 이 역시 발음의 편의성 때문이야. 아래의 그림을 좀 봐 봐.



'ㄷ, ㅌ' 발음　　'ㅈ, ㅊ' 발음　　'ㅣ' 발음

색깔 부분이 바로 혀야. 혀의 위치를 보면, 'ㄷ, ㅌ'보다는 'ㅈ, ㅊ'이 모음 'ㅣ'와 비슷한 위치에서 발음됨을 알 수 있어. '디, 티'보다는 '지, 치'가 비교적 발음하기 쉽다는 거야. '지, 치'는 혀의 위치가 비슷한 'ㅈ, ㅊ'과 'ㅣ'가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디', '티'를 '지', '치'로 바꿔서 읽는 거야. 편히 발음하려고. 이렇게 'ㄷ, ㅌ'이 'ㅈ, ㅊ'으로 변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불러. 이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하는 이유는 'ㅈ, ㅊ'이 구개음이기 때문이야.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ㅈ, ㅊ'은 경구개음이니까 '경구개음화'라고 불러야 더 맞겠지만, '경'자를 빼고 '구개음화'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야. '구개음화', 잘 기억해 둬!

예제 | 연습문제

01 다음 단어들의 발음을 적어 본 후, 관련 있는 음운 현상의 기호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비음화　㉢ 유음화
㉣ 된소리되기　㉤ 구개음화

(1) 꽃밭 [　　]　(2) 물난리 [　　]　(3) 미닫이 [　　]
(4) 막내 [　　]　(5) 국밥 [　　]

02 다음 말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모두 적어 보자.

(1) 앞문[암문] : (　　)
(2) 덮개[덥깨] : (　　)
(3) 같이[가치] : (　　)
(4) 맡는[만는] : (　　)

03 (가), (나)의 예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교육청모의 변형]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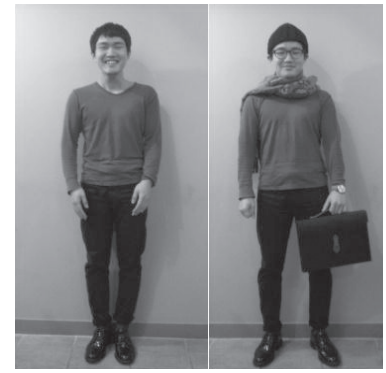
(가) 우리말에서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즉, 7개 자음 이외의 자음이 받침으로 쓰일 때에는 7개의 대표음 중 하나로 발음된다.
(나) 우리말에서는 받침으로 쓰인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가)	(나)
①	꽃[꼿]	닫는다[단는다]
②	숲[숲]	국물[궁물]
③	밭[받]	꽃말[꼰말]
④	갓[갇]	깍두기[깍뚜기]
⑤	낮[낟]	안마당[안마당]

예제풀이 | **01** (1) [꼳빧] – ㉠, ㉣ (2) [물랄리] – ㉢ (3) [미다지] – ㉤ (4) [망내] – ㉡ (5) [국빱] – ㉣
02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2)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3) 구개음화 (4)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03 ③ ((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③, ④, ⑤의 경우가 바르게 발음한 경우야. ①의 '꽃'은 [꼳]으로 발음하고, ②의 '숲'은 [숩]으로 발음해야 해.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비음화로, ①, ②, ③의 경우가 이에 해당해. ④의 '깍두기'는 받침 뒤에 오는 '-두-'가 비음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고, ⑤의 '안마당'은 파열음이 받침으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아.)

Act 09

문법 요소



옆의 사진을 봐 봐. 우리가 외출을 할 때는 평상시의 모습에서 나름의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하고, 시계도 차고, 가방까지 들고 나서야 현관을 나서잖아. 문법 요소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몸에 액세서리를 걸치는 것과 같아. 사진만 봐도 왼쪽과 오른쪽의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 문장 역시 전달하려는 기본적인 뜻 위에 다양한 문법 요소를 얹어서 그 문장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예를 들어, '학교 가다.' 라는 기본 뜻을 가진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과거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 '-았-' 을 서술어의 사이에 넣어서 '학교 갔다.' 라는 문장을 완성할 수 있어. 물어보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학교 가니?' 라는 문장을 만들 것이고, 두 가지를 합쳐서 '학교 갔니?' 라는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지. 이처럼 기본적인 뜻을 더욱 명확하고 분명하게 만들어 주는 문법 요소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자유롭게 쓰고 있어.

1 문장 종결의 유형

교과서핵심 ⑩ | 문장 종결의 유형 ★★★★☆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어떤 문장을 말하거나 쓸 때, 문장을 끝내는 방법에는 우리의 의도가 담긴다고 할 수 있어. 그럼 '집에 가다.' 라는 문장을 떠올려 보고, 아래의 표를 같이 보자.

예문		문장	종결 어미
기본 뜻	의도		
집에 가다.	집에 간다.	평서문	-(ㄴ)다.
	집에 가니?	의문문	-까?/-니?
	집에 가라.	명령문	-(아/어)라.
	집에 가자.	청유문	-자.
	집에 가는구나!	감탄문	-(는)구나!

'집에 가다.' 라는 뜻을 듣는 이에게 단순히 전달할 목적이라면, 아마 '집에 간다.' 라고 말하게 될 거야. 상대방이 집에 가는지가 궁금하다면, '집에 가니?' 라고 하겠고, 함께 집에 가자는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집에 가자.' 라고 말하겠지. 마찬가지로 '집에 가라.' 라는 말은 누구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의도를 담고 있는 문장이야. 감탄을 하는 상황이라면 '집에 가는구나!' 가 쓰이겠지.

이처럼 종결 어미에는 특정한 의도가 담기기에, 어떤 종결 어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어.

평서문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자기의 생각만을 단순하게 나타내는 문장
- 평서형 종결 어미 : -(ㄴ)다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집에 간다.' 라는 문장은 평서문이야. **평서문**은 듣는 이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그냥 나타내는 거야.

의문문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 의문형 종결 어미 : -(느)냐, -니, -나, -가, -까
  - 판정 의문문 :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 설명 의문문 :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
  - 수사 의문문 :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내는 의문문

누군가 너를 보고 '노래방 갈래?'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 아마, '응' 또는 '아니' 라는 대답을 하게 될 거야.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문문**은 듣는 이에게 대답을 요청해. 하지만 모든 의문문에 '예/아니요' 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예/아니요' 이외의 설명이 필요한 질문도 있고, 굳이 대답이 필요하지 않은 질문도 있어.

① 집에 갈까?

② 언제 집에 가니?

③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집에 갈 수 있으려나?

각 예문들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①에 대한 대답은 '응' 또는 '아니' 가 되겠지? 이렇게 긍정 또는 부정이라는 판정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판정 의문문**이라고 불러.

②에는 '언제'라는 의문사가 들어 있어.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언제'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지. 즉, 판정 의문문처럼 '예/아니요'가 아니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하는 거야. 이러한 의문문을 **설명 의문문**이라고 불러.

③과 같은 질문에는 굳이 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 문장은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서 '아마 집에 가기 힘들 것 같아.'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어. 이처럼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말하는 이의 뜻을 전달하는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불러. 무늬만 의문문인 거지. 문학에서 배우는 표현법 중 하나인 설의법과 같다고 생각해도 돼. '그는 참으로 영리하지 아니한가?'라는 문장은 답을 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잖아. ^^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종결 어미 '-(느)냐, -니, -나, -가, -까'를 굳이 외우려 하지마. 평소에 묻는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어미를 의문형 종결어미라고 생각하면 돼.

명령문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문장
- 명령형 종결 어미 : -(어/아)라

● 좋은 말로 할 때 책 펴라.

예문에서 말하는 이는 듣는 이에게 책을 펴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명령문**은 듣는 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명령문의 서술어는 동사일 수밖에 없어. 형용사는 행동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너 이제부터 예뻐라."라거나 "이 음식이 맛있어라."라는 표현은 이상하잖아.

그리고 명령문은 듣는 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기에 과거형과 함께 쓰일 수 없어.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명령할 수가 없는 거지. 만약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명령문을 쓰는 상황이라면 '내일', '2주 후'와 같은 구체적인 시간 표현이 함께 쓰여야 하고.

기원이나 소망을 얘기할 때는 형용사라도 명령형으로 쓸 수 있어. ㉠ "음식이 제발 맛있어라."

청유문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문장
– 청유형 종결 어미 : –자

● 붙잡은 손 놓지 말자.

예문에서, 말하는 이는 듣는 이에게 손을 놓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어. **청유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문장이야. 행동에 대한 서술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용사는 명령문과 마찬가지로 청유문의 서술어가 될 수 없어. 청유문은 명령문과는 달리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청유문의 주어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합친 '우리' 라고 할 수 있겠지.

명령문처럼 청유문 역시 과거형과 함께 쓰일 수 없어. 마찬가지로 미래 상황을 가정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시간 표현이 함께 쓰여야 하고.

감탄문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거의 의식하지 않거나 혼잣말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 감탄형 종결 어미 : –(는)구나

● 새들도 슬피 우는구나!

감탄문은 듣는 이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말하는 이의 놀람, 기쁨 등의 감정이나 느낌 자체를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문장이야.

예제 | 연습문제

각 문장과 이에 해당하는 문장의 종결 유형을 바르게 연결해 보자.

01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다. •
02 오늘 점심 반찬은 무엇이야? •
03 빨리 문제를 풀어라. •
04 우리 함께 이야기하자. •
05 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구나! •

• ㉠ 의문문
• ㉡ 청유문
• ㉢ 감탄문
• ㉣ 평서문
• ㉤ 명령문

예제풀이 | 01 ㉣ 02 ㉠ 03 ㉤ 04 ㉡ 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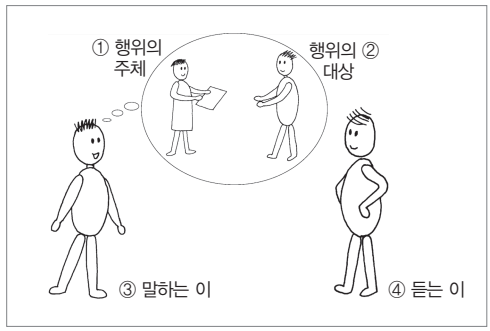
2 높임 표현

교과서핵심 ⑪ | 높임 표현 ★★★★★

(어떤 대상을 높이느냐에 따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높임 표현이래.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 높임 표현을 잘못 쓰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 높일 필요가 없는 대상을 굳이 높인다든지, 중복해서 높임 표현을 쓴다든지 말이야.

높임 표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바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야.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



왼쪽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 대화 장면에는 보통 말하는 이, 듣는 이, 말하는 이의 말(문장)이 존재하지. 그래서 '말하는 이'가 높일 수 있는 대상은 그림 속 ①, ②, ④임을 알 수 있어. 자기 자신은 높일 수 없으니 말이야. 여기서 ①을 높이면 주체 높임, ②를 높이면 객체 높임, ④를 높이면 상대 높임이 돼. 그럼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

주체 높임

주어를 높이는 표현

– 표현 방식 : 주격 조사 '께서',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 특수한 용언(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등)

●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모르신다.

주체 높임은 행위의 주체인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표현이야. 위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주체 높임은 주격 조사 자리에 '이/가' 대신 '께서'가 쓰이거나, 서술어 자리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으)시–'가 결합하면서 만들어져.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계시다', '드시다(잡수시다)' 등의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하고 위의 '선생+님' 처럼 주어 명사에 '–님'이 덧붙기도 하지.

때로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높이려는 사람과 관련된 것이나 신체의 일부를 높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간접 높임이라고 해. 예를 들어 '아빠 목소리가 좋으시다'나 '엄마 손이 고우시다.'와 같은 문장을 보면, 각각 '목소리'와 '손'을 높이고 있잖아? 대상과 관련된 것이나 신체

를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빠, 엄마를 높이고 있는 거지. 이와는 반대로 사람을 직접 높이는 것은 직접 높임이라고 해.

간접 높임의 경우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시-'를 사용해. 곧, '선생님은 딸이 계시다'가 아니라 '선생님은 딸이 있으시다'라고 해야해.

객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표현
– 표현 방식 : 부사격 조사 '께', 특수한 용언(드리다, 여쭙다, 뵙다, 모시다 등)

① 형이 할머니를 모시고 큰댁에 들렀다.
②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객체 높임은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높임 표현이야. ①에서 '모시다'라는 서술어는 목적어 '할머니'를 높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②의 '드리다'는 부사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어. 만약 두 예문에 각각 '모시고' 대신 '데리고'가 쓰이고, '드렸다' 대신에 '줬다'가 쓰인다면 매우 어색할 거야.

객체 높임은 높임의 뜻을 가지는 특수한 어휘가 쓰여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예로는 '드리다, 여쭙다, 뵙다, 모시다.'와 같은 것들이 있어. 또한 ②에서 보듯이 부사격 조사 '에서' 대신에 쓰이는 조사 '께' 역시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지. 앞에 나왔던 주격 조사 '께서'와 헷갈리면 안 돼!

상대 높임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
– 표현 방식 : 문장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표현이야. 하지만 **상대 높임**은 시선이 조금 달라. 문장이 아니라 말하고 듣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우리는 말할 때 상대를 봐 가면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데, 이를 상대 높임이라고 해. 서로의 관계에 따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문장 종결 어미를 통해 드러나는 거야.

상대 높임은 높임의 정도에 따라 모두 여섯 단계로 나눌 수 있고, 또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구분할 수 있어. 예문들을 한번 보자.

격식체	앞을 보십시오.	(하십시오체/아주 높임)
	앞을 보시오.	(하오체/예사 높임)
	앞을 보게.	(하게체/예사 낮춤)
	앞을 봐라.	(하라체/아주 낮춤)
비격식체	앞을 봐요.	(해요체/두루 높임)
	앞을 봐.	(해체/두루 낮춤)

격식체는 대개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 사용돼서 격식체라고 불러. 반대로 비격식체는 격식을 차리지 않는 보통의 상황에서 자주 쓰기 때문에 비격식체라고 부르지.

격식체는 네 가지 정도의 등급이 있는데, 상대를 가장 높이는 '아주 높임(하십시오체)', 조금 높이는 '예사 높임(하오체)', 조금 낮추는 '예사 낮춤(하게체)', 가장 낮추는 '아주 낮춤(하라체)'으로 나눠 볼 수 있어. 하오체나 하게체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지만, 하십시오체나 하라체는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

비격식체는 다양한 상대에게 두루 쓰일 수 있는 '두루 높임(해요체)'과 그 반대인 '두루 낮춤(해체)'으로 나뉘어. 너희가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해요체와 해체일 거야.

참, 상대 높임은 문장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리고 앞에서 문장 종결 유형에 따라 어떤 의도가 담기는지를 배우면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에 대해서 배웠지? 이처럼 문장 종결 어미에는 높임과 문장 유형이 동시에 표현이 돼. 그래서 높임 표현과 문장 종결 유형이 만나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표를 아래에 실어 놨어. 한번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넣었으니 굳이 외우지 말고 살짝 보고 넘어가는 걸로~!

종결 유형 / 상대높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하십시오체 아주 높임	-ㅂ니다 (갑니다/예쁩니다)	-ㅂ니까? (갑니까?/예쁩니까?)	-ㅂ시오 (가십시오/*예쁘십시오)	(-시지요) (가시지요/*예쁘시지요)	
하오체 예사 높임	-오 (가오/예쁘오)	-오? (가오?/예쁘오?)	-오 (가오/*예쁘오)	-ㅂ시다 (갑시다/*예쁩시다)	-(는)구려 (가구려/예쁘구려)
하게체 예사 낮춤	-네 (가네/예쁘네)	-ㄴ/는가? (가는가?/예쁜가?)	-게 (가게/*예쁘게)	-세 (가세/*예쁘세)	-(는)구먼 (가는구먼/예쁘구먼)
해라체 아주 낮춤	-(ㄴ/는)다 (간다/예쁘다)	-(느)냐? (가느냐?/예쁘냐?)	-어라 (가라/*예뻐라)	-자 (가자/*예쁘자)	-(는)구나 (가는구나/예쁘구나)
해요체 두루 높임	-어요 (가요/예뻐요)	-어요? (가요?/예뻐요?)	-어요 (가요/*예뻐요)	-어요 (가요/*예뻐요)	-어요 (가요/예뻐요)
해체 두루 낮춤	-어 (가/예뻐)	-어? (가?/예뻐?)	-어 (가/*예뻐)	-어 (가/*예뻐)	-어 (가/예뻐)

(*는 문법적으로 틀린 것)

Act 16

국어의 변천

앞으로 국어가 역사적으로 어떤 변천을 겪어 왔는지에 대해 배울 거야. 모든 변천을 한꺼번에 배우면 힘드니까 표기, 음운, 단어, 문장의 순으로 나눠서 변천 과정을 살펴볼게. 우선 너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대를 좀 구분해 볼까?

시대를 크게 둘로 나누면 훈민정음 창제 전과 창제 후로 나눌 수 있어. 앞에서 배웠지? 그러니까 한자를 빌려 쓰는 차자 표기는 '고대 국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고, 본격적으로 쓰던 시기는 바로 '후기 중세 국어'에 해당하지.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후기 중세 국어 ~ 근대국어'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앞으로 후기 중세 국어는 편의상 '중세 국어'로 통칭할게.)

자, 그럼 이제 국어의 변천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1 표기의 변천

교과서핵심 ⑧ | 표기 방식의 변화 ★★★☆☆

'이어적기(연철) → 거듭적기(중철) → 끊어적기(분철)'의 순으로 변화

예 사라미 → 사람미 → 사람이

우선 중세 국어에서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로 오면서, 한글의 표기법이 계속 달라졌어. 처음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을 때는 **이어적기**[연철(連綴)]가 원칙이었어. 이어적기는 앞의 받침을 뒤의 초성으로 옮겨 소리 나는 대로 쓰는 표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곰돌이'라는 단어를 글로 쓴다고 할 때, '돌'의 종성 'ㄹ'을 뒷말의 초성으로 옮겨서 '곰도리'라고 쓰는 거지. 소리 나는 그대로 말이야. 이 역시 백성들이 철자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한 세종의 배려에서 비롯된 거야. 그래서 중세 시기의 자료를 보면 8종성법과 이어적기로 인해 표기가 거의 다 소리 나는 대로 되어 있어.

현대 국어에서는 '곰도리'가 아니라 '곰돌이'라고 쓰지? 오늘날과 같이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법은 **끊어적기**[분철(分綴)]라고 해. 세종 이후 계속 사용되어 온 이어적기가 언제부터 끊어적기로 바뀌었을까? 물론 개개인이 이전부터 조금씩 끊어적기를 써 오기는 했어. (심지어 이어적기를 하라고 했던 세종도 자기가 글을 쓸 때는 끊어적기를 사용하고는 했지.) 그러다가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 사실상 '끊어적기'를 택하면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끊어적기, 곧 분철을 사용하게 되었어.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사이에 근대 국어 시기는 일종의 과도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마구 혼용되었어. 기본적으로는 이어적기를 사용하는데,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는 끊어적기를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점차 많아졌지. 〈동명일기〉라는 자료만 보더라도 '긔운이', '하ᄂᆞᆯ을' 처럼 끊어적기를 사용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어. 이는 아마도 체언이 워낙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돼.

뿐만 아니라 근대 국어 시기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 중 하나가 **거듭적기**[중철(重綴)]야. 예를 들어 〈독립 신문 창간사〉에는 '쓴ᄂᆞᆫ'이라는 표기가 나와. 이는 원래 '쓰-+ -ᄂᆞᆫ' 인데, ㄴ을 한 번 더 추가하여 '쓴ᄂᆞᆫ'이라고 거듭 적은 거야. 이러한 거듭적기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의 과도기에 나오게 된 특별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2 음운의 변천

이번에는 음운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영어권 사람들과 우리가 인식하는 음운 사이에 차이가 있듯이, 한반도에 살았던 옛 조상과 우리가 인식하는 음운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 이게 바로 '음운의 변천'에서 다룰 내용이야. 어려울 것 같다고?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자신감을 갖고 공부해 보자!

교과서핵심 ⑨ | 사라진 자음들 ★★★☆☆

ㅸ(순경음 비읍), ㅿ(반치음), ㆁ(옛이응), ㆆ(여린히읗)

중세 국어 때는 있었지만 현재는 사라진 자음들이 있어. ㆆ(여린히읗)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거의 쓰이지 않고 사라졌고, ㅸ(순경음 비읍), ㅿ(반치음), ㆁ(옛이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소리로 변화하거나,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어.

자, 이제 사라진 자음들이 어떤 이유로 사라지게 되었는지, 또 그 자음들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ㅸ(순경음 비읍)

영어 발음 [v]와 비슷한 소리

ㅸ ➡ [ㅗ/ㅜ]

예 더ᄫᅴ → 더위, 구ᄫᅥ → 구워, 고ᄫᅡ → 고와

첫 번째는 'ㅸ(순경음 비읍)' 이야. 이것은 비읍보다는 가볍고 부드러운 소리야. 순경음은 순음(입술소리)이라는 말 속에 '경' 자가 들어간 용어인데, 이때 '경' 은 가볍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순경음인 'ㅸ' 은 순음인 'ㅂ' 보다 가벼운 소리가 나는 거지. 'ㅸ' 은 입술을 붙였다가 뗄 때 입술을 가볍게 떨어 주는 소리야. 영어의 'V' 랑 비슷한 소리지.

오늘날 우리의 국어 생활에서 'ㅸ' 소리는 '더버라(더워라)' 와 같이 경상도 방언에만 조금 남아 있을 뿐, 더 이상은 쓰이지 않아. 'ㅸ' 의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모음 [ㅗ/ㅜ] 소리로 변했지. 하지만 'ㅸ' 이 쓰였던 옛 단어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면 'ㅸ' 이 있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

형용사 '덥다' 와 명사 '더위' 를 통해 'ㅸ' 의 흔적을 찾아보자~! '덥다' 에서 파생된 '더위' 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어. 그런데 '덥다' 의 명사형은 '덥이' 여야 하지 않아? 생각해 봐. '길다' 의 명사형은 '길이' 이고, '넓다' 의 명사형은 '넓이' 잖아. 같은 방법으로 파생된 명사라면, 어째서 '덥이' 가 아닌 '더위' 가 되었을까? 비밀은 바로 'ㅸ' 에 있어. '덥다' 의 옛 모습은 '덥ᄫᅡ' 였어. 받침이 'ㅂ' 이 아닌 'ㅸ' 인 거지. '덥ᄫᅡ' 는 '덥ᄫᅡ + 이' 로 파생되어 '더ᄫᅴ'(당시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기 때문에 '덥이' 가 아니라 '더ᄫᅴ' 야!)가 되었어. 시간이 흘러서 '덥ᄫᅡ' 의 'ㅸ' 은 'ㅂ' 으로 대체되면서 '덥다' 가 되었지만, '더ᄫᅴ' 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ㅸ' 이 반모음 [ㅜ]로 소리가 변하여, '더위' 가 된 거야.

구불구불 '굽다', 지글지글 '굽다'

'굽다' 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다른 뜻이 있어. 구불구불 휘어졌다는 뜻과 불에 굽는다는 뜻, 이렇게 말이야.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이 두 단어는 활용형이 달라. '등이 굽다' 에서의 '굽다' 는 '굽으니, 굽어서, 굽어라' 로 활용되는데, '고기를 굽다' 에서의 '굽다' 는 '구우니, 구워서, 구워라' 로 활용돼. 왜 똑같은 모양과 소리의 단어임에도 활용형이 다른지 궁금하지? 그 이유는 중세 국어 시기에는 이 두 단어가 동음이의어가 아니었기 때문이야! 당시에 두 단어는 '굽다' 와 '굻다' 로 서로 표기가 달랐을 거야. 중세에도 '굽다' 로 쓰였던 것은 지금까지 '굽다' 로 이어져 왔고, '굽으니, 굽어서, 굽어라' 등 규칙적으로 활용돼. 그러나 '굻다' 였던 단어는 '구ᄇᆞ니, 구ᄫᅥ서, 구ᄫᅥ라' 가 되었다가, 'ㅸ' 이 반모음 [ㅗ/ㅜ]로 바뀌면서 '구우니, 구워서, 구워라' 로 활용되는 거지. 앞서 공부한 '덥다' 와 '더위' 의 관계를 이해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